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체성혈 대축일(예수 성심 성월)
제32권 28호(나해) 2012.6.10

[묵상]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당신 아드님의 십자가상 희생 제사로
저희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저희가 그 길을 잘 따라오길 원하시니
단 한 번의 봉헌만으로 불안하신 듯
아드님의 살과 피로 성체성혈 만드시어
매일의 양식으로 봉헌토록 하십니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때에
저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새로운 계약
새 백성을 위한 새로운 의식 거행하시니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다.

예수님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시어
당신을 믿고 따를 이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으로 삼으시니
당신 사랑이 담긴 성체성혈을 모실 때
저희가 갈망하던 구원은 이루어지고
당신의 사랑이 완성되나이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에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바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체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인)
특전미사	(생)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 김봉길 바오로, 이태숙 카타리나, 이상일 요셉, 고준희 제임스, 오상훈 요한, 김종환 야고보, 유원준, 노식 베드로, 정운봉 베드로, 한필훈, 김영자
낮 미사	(생)유재형 요셉, 임종택 베르나르도 & 임수연 에메리파, 신대철 알베르토, 유영균 우르바노, 박음전 아녜스, 주용범 아브라함 & 주이자 테레사, 강덕희 올리아나, 정규숙 안나, 백지자 세레나, 김영길 안드레아, 조화숙 안젤라, 차인수 안드레아, 김다니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24,3-8

화답송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구원의 잔 받들 - 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9.11-15

복속가 - 성체 송가<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양식> -
천사의 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만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마르코(St. Mark) 14,12-16.22-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06	106	106
봉헌	255	255	259
성체	292	292	291
파견	312	312	24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문자”를 초월할 필요성

영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도 이
전이가 극적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주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습
니다. 그는 바로 암브로시오 성인에게서 배웠던 예형론적 해
석을 통하여 이 초월을 했고, 이전에는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고 때로는 조야하게 보였던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형론적 해석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문자를 초월하는 것은
그 문자 자체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그에게 마침내 진리
를 목말라하던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불안에 대한 응답을 찾
게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내재적 단일성

39). 교회의 위대한 전통들로부터 우리 역시 문자에서 영으로
건너가면서 또한 성경 전체의 단일성을 파악하기를 배우게 됩
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로 부르시며 우리 삶에 말을 거시
는 하느님의 말씀은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생
빅토르의 위고의 말은 우리에게 확실한 지침이 됩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하나의 책이고, 그 단 하나의 책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물론,
순전히 역사적이거나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성경은 문
학 본문들의 모음으로서 천 년 이상에 걸쳐 형성된 것이고, 그
개별 책들이 내적인 단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긴장들
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이라고 부르
는 이스라엘의 성경 안에서 이미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약 성경과 그 책들을 해석학적 열
쇠처럼 이스라엘의 성경에 연결시키고 이스라엘의 성경을 그
리스도를 향한 길로 해석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신약 성
경에서는 “성경”이라는 용어를 단수형으로 사용하기보다(로마
4,3; 1베드 2,6 참조) 복수형으로 사용하지만(마태 21,43; 요
한 5,39; 로마 1,2; 2베드 3,16 참조), 이들 전체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유일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유일하신 “말씀”과의 관계에서 모
든 “성경”에 단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내적인 일체성을 올바른 신앙의 해
석학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 계시현장「하느님의
말씀」 제12항의 말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며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장면들은 실제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 사도(아마 요한)가 그리스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녁 만찬 때,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찬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느끼셨을 때 그 느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감동 받으신 때는 감동 받았을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지니셨기에 육체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주지시키시며 예수님께서서는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부모가 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마르 10,16)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사람들은 감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마르코 복음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마르 1,31)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마르 1,41),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마르 5,41) 하고 말씀하셨다.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마르 6,56)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마르 7,33)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

똑히 보게 되었다.”(마르 8,22,2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깊은 애정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참으로 바쁜 나날이었기에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내지도, 빵 한 조각 제대로 먹을 시간도 낼 수 없었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쉼 쉬어라.”(마르 6,3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과월절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별려 오셨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루카 22,32)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며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갖고 계신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의 끝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라고 하심으로써 떠나고 싶지 않은 친구들에 대한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와 빵을 나누시면서, 요동하는 배 안에서 그들을 진정시켜 주시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섬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친인척 관계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절대 서로 갈라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구로2동성당 주임

주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인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 성 힐라리오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권오상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테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요셉희 (아버지날)

- ✿ 졸업을 축하합니다. ✿

6월은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식이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본당의 초, 중, 고, 대학 모든 졸업생들에
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크
신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0일) 오후 1시30분~5시, 성전
- 피정 지도 : 이상을 바실리오 신부
- 대상 : 전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레지오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준비물 : 필기도구
- 점심 제공합니다.
- 문의 : 최기남 야고보 꾸리아단장 ☎(310)569-3940

- 일시 : 오늘 주일(10일) 오후 1시 천교장
- 여행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십시오.

- 일시 : 6월17일(주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유석영 테오 & 혜정 로사 가정
- 문의 : 본당 ME 대표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올리아
☎(310)789-9055

- 일시 : 6월 27일(수) 오후 7시 30분 미사후
- 대상 : 5월 27일 성령강림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

● 주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울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새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본당 종신부제의 부인인 최숙 클라라 님께서 LA대교구가
교육하는 영성지도자 과정(3년)을 지난 5월 우등 졸업하고
Certificate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로써 LA대교구내에서 정
식으로 피정지도와 영성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
니다. 축하드립니다. ☎(213)637-9000

●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다음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일 학생미사는 그대로 봉헌되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에 광고후원금을 보내오고 계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우들께서는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들 업소를 가능하한 애용하여 주십시오.

● 6월10일(주일) : 지난주 선종하신 이경용 야고보님의 유족께서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신 본당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주일 낮미사 후 점심(샌드위치와 음료)을 대접합니다.

* 주일학교(1학년 피자)

- 6월 17일(주일) : 토런스 북 1반(김치콩나물밥 \$3)

교무금	강덕희 김기종 김준철 노찬술 박정자 엄정자 이근모 이효세 정순석 최태훈 영회가브라	강윤철 김진숙 김진기 박정은 오신재 이상석 임분필 정열모 최희숙	고천용 김병조 김선화 방정복 오일순 이상철 장영우 조준제 한창주	국세관 김영길 김형곤 김혁니 배대임 윤희동 이석진 장영진 주대중 황학수	김관기 김옥보 남명자 박원철 이경태 이영희 전시웅 주용범 신영웨이	김교찬 김성철 남인식 송재훈 이귀분 이은록 전정일 최재은	강운철 김선술 박정희 이귀분 이은록 조준제 영회가브라	고천용 김영길 김형곤 박성복 이근모 이효세 주대중	국세관 김영길 김혁니 김영선 이상석 장영우 주용범	김관기 김병조 김선화 방정복 오일순 이상철 장영우 조준제 한창주	김교찬 김성철 남인식 송재훈 이귀분 이은록 전정일 최재은	강운철 김선술 박정희 이귀분 이은록 조준제 영회가브라	합계 : \$3,365	
	미사헌금 : \$2,985	2차헌금 : \$971	주보광고후원 : \$50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2012-2013학년도 주일학교 등록접수

2차접수부터 등록금이 인상되니 서둘러 주시기바랍니다.

- 1차접수: 여름방학전까지(6월30일 마감)
- 대상: 유치원~12학년
- 등록비: 첫째자녀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8월5일부터(\$140, \$120, \$100, 무료)
- 자모회비: \$40(가정당)

주일학교 종강식 및 시상식

- 일시: 오늘 주일(10일) 오전 9시30분 미사중
- 대상: 주일학교 학생(각학년별 우수상/모범상/개근상)
- 미사후 주일학교 수업있습니다.
- 종강모임: 점심식사 후 낮12시~1시 강당(케익과 과일후식) 자모회 회장단 및 청소년분과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한국학교 소식

- 종강식 및 시상식: 오늘 주일(10일) 오후 2시 강당
- 2012-2013학년도 한국학교 등록: 6월17일(주일)부터 학생미사와 11시미사 전후
- 등록금: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 SAT II 한국어 특별반 모집
- 대상: 현재 8학년 이상
- 수업시작: 7월1일(주일) 학생미사후 8주간 계속
- 등록금: 새학기 등록자 무료
- 문의: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장 ☎ (310)713-2669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시: 6월29일(금)~7월1일(주일) *장소: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접수, 장소관제상)
- 참가비: \$70(no refund)

남가주 소식

제5회 2012 FIAT(피아트)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6월21일(목)~24일(주일)
- 장소: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 애나하임, CA
- 참가비: 무료(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참조)
- 참가대상: 주일학교교장/교사, 중고등부 사목담당자, 청년사목담당자, 학생미사 음악봉사자 등
- 피정프로그램: 기본/실질적 사목능력 교육, 영성교육
- 신청서 다운로드: www.fiat.org

구인 Paramounttariff.com (사무직 풀타임)

FMC규정에 따른 세계 유수의 회사임. 사우스레이크지역 이중언어(한/영)가능자, 컴퓨터 필수, 시민/영주권자

* 이력서 이메일 요망 support@paramounttariff.com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원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최성자 카타리나 548-4645 6/8(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6/8~9 빅배어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서영주 시몬 357-7829 6/15(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홍광선 요셉 543-4953 6/9(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6/13(수)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현석주 아오스당 594-9472 6/16(토)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6/14(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6/16(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오로 365-2183 6/12(화) 오후 8시 반미사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유영군 우르바노 985-2882 6/9(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정훈모 바오로 377-6328 6/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544-4807 6/2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유석영 레오 213-369-0687 6/8(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오현희 골롬바 818-6930 6/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추억어린 첫영성체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개구쟁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식사 예절과 방법, 젓가락질을 가르치고 있군요. 음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해마다 5월이 되면 해맑고 귀여운(?)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성당 교리실에서 수녀님이나 교리선생님들로부터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이 많이 그려진 책으로 배우고, 뭔가를 계속해서 읽고 외우면서 때로는 선생님께 검사를 받고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교리를 배우며 주요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는지를 배워야 세상에서도 음식을 맛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인 성체를 모실 때도 성체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아 모셔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대부분 성당에서는 어린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시는 첫영성체 예식을 거행합니다. 첫영성체 교리를 가르칠 때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하느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식인 성체를 받아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면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어요. 성체와 성혈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인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과 피예요. 예수님께서서는 최후만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던 빵과 포도주로 감사 예식을 거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행하신 만찬 예식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념 예식이 바로 미사이며, 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사제들에 의해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축성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이며, 하느님 사랑의 상징이랍니다.”

교우 여러분,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음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도 제대로 잘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성체를 처음으로 거룩하게 영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첫영성체 때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미사 때마다 참된 영적인 빵, 참된 영적인 밥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김주현 도미니코 신부 / 부산교구

닭발, 짬뽕, 고등어

서울 북쪽 산 밑에 가난한 사람들의 오래된 마을이었다.

가난은 설화(說話)처럼 그 마을에 전승되고 있다. 건물주도 세입자도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재개발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로 부딪쳐서 사업은 어려워 보인다. 꼬불꼬불한 비탈길을 따라서 ‘불량주택’이라는 행정명칭이 붙은 집들이 벽을 비비면서 잇달아 있다. 영화칼슘과 소화기를 보관하는 집에는 표시판이 붙어 있고, 연탄재, 드링크 병, 소주병이 쓰레기장에 쌓여 있다. 동네 아래 작은 시장에 생닭을 파는 가게가 있다. 옹통에서 잘라낸 닭발을 따로 팔고 있다.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오는 여자가 이 가게에서 닭발을 사서 산동네로 올라갔다. 닭발은 1kg짜리 포장(약 40개)이 5천 원인데 날개로는 150원이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가게에 올 때마다 옹통은 사지 않고 닭발만 스무 개씩 산다고 한다. 닭발은 찌서 무쳐 먹기도 하고 마늘을 넣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닭 발바닥은 살았을 때 고생을 많이 한 부위이다.

싸울 때 상대를 할키고 먹이를 찾을 때에는 땅바닥을 헤집는다. 그래서 그 발바닥의 굳은살은 씹는 맛이 탄실하다고 가게 주인은 설명해주었다. 그 여자가 닭발 봉지를 들고 올라가는 비탈길 옆 ‘불량주택’ 처마 밑에 마을 사람들이 꽃을 키우고 있었다. 페타이어나 드럼통, 플라스틱 항아리나 폐목을 열기설기 짜 맞춘 화분에 맨드라미, 과꽃, 봉숭아, 파리, 조롱박을 심었고, 상추, 고추, 대파, 부추 같은 식용작물을 심은 집도 있었다. 식용작물도 푸르게 빛나서 화초나 다름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뼘의 땅이나 틈새에도 기어이 꽃을 심어놓았다. 페타이어에서 올라온 조롱박 넝쿨이 노란불이 켜진 창문으로 기어올랐고 방 안에서 저녁을 먹는 아이들이 무어라고 지껄이고 있었다. 숟가락이 냄비를 긁는 소리도 들렸다. 닭발 봉지를 든 여자는 마을이 거의 끝나가는 산동네 꼭대기 쪽으로 올라갔고, 나는 마을 아래로 내려왔다. 꽃감 빼먹듯이, 내 여생의 하루는 또 저물어서 사라졌다. 그 여자는 닭발을 끓여서 아이들을 먹고 있을 것이었다. 내가 사는 마을(일산)의 짬뽕 값은 지난 6개월 사이에 양극화되었다. 6천 원짜리 짬뽕은 없어졌고 8~9천 원짜리 짬뽕과 3천 원짜리 짬뽕으로 갈라졌다. 8~9천 원짜리에는 주꾸미와 백합조개, 새우, 오징어가 몇 점 더 들어갔고 3천원짜리는 국수와 야채에 조개 몇 점이 들어 있었다. 비싼 짬뽕이나 싼 짬뽕이나 국물 맛은 같았다. 재료를 우려낸 국물이 아니라 가루를 뿌려서 만든 국물 같았다. 그 맛은 사람을 찌를 듯이 달궈주고 조급하고 사니웠다. 나는 짬뽕 값이 3천 원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에는 2천7백 원짜리 짬뽕이 등장했다. 밤새 아르바이트를 한 젊은이들과 술취한 사내들, 야근을 마친 사내들이 새벽 짬뽕 집에 와서 그 거친 국물을 후룩후룩 마셨다. 아직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8~9천 원짜리 짬뽕을 먹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2천7백 원짜리 짬뽕을 먹으면서, 다들 견디고 있었다.

새벽의 사내들은 국물을 많이 들이켰다. 주인은 일회용 컵에 짬뽕 국물을 리필해 주었다. 사내들은 카아, 탄식을 쏟아내며 리필 국물을 마시고 나서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아침거리로 나갔다. 저녁때 TV를 보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이 시장 저 시장을 찾아다니며 어물전에서 고등어를 TV카메라 쪽으로 들어올리면서 환히 웃고 있었다. ◆김훈 아우구스티노/소설가